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에 대한 고찰*

정혜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The Background and the Pursuits of Saenghwal Hanbok

Hye-Gyung Ch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00. 8. 23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give a definition and to find out the background and the pursuits of Saenghwal Hanbok.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Saenghwal Hanbok and Gaeryang Hanbok are used together at the same time, but they are different the background and the pursuits. Gaeryang Hanbok was pursued practical aspects - activities, simplification, sanitation, courtesy, economy, and diversity. And then Saenghwal Hanbok was added the pursuits of Minjung's image, traditional image, modern esthetic.

2. The background of Saenghwal Hanbok is divided into two group. One is the Minjung Hanbok in University, and the other is the recreated Hanbok in mass fashion. The former was effected to youth culture, political quarrel of culture movement, anti-government group. The latter was a tendency toward reviving the tradition.

3. The characters of Saenghwal Hanbok were a national tradition, a resistance, the image of poor Minjung, a revival of the tradition, and a diversity and negotiation of post-modernism.

Key Words : Saenghwal Hanbok, Gaeryang Hanbok, Minjung Hanbok, Minjung

생활한복, 개량한복, 민중한복, 민중

I. 서론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전래되거나 물려받은 모든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전통에는 변화를 거부하며 정통성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긴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 본 논문은 2000년도 경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전통의상인 한복은 변화를 요구하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전통적인 이미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생활한복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이란 옛것의 재현이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통으로 탄생되어 오늘날의 고유문화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전통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의 원래적 요소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남아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¹⁾. 생활한복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한복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활한복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정립되고, 그 형성배경과 내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다소 소홀하여 생활한복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 형성배경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고찰하는데 머물고만 실정이다. 다만 안명숙 외 2인의 연구²⁾는 생활한복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민족문화의 중요성 자각, 실용적인 측면의 강조,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제시하였으나, 개괄적인 분석에 그쳤을 뿐 사회변천양상과의 관계 속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로는 생활한복의 구매 실태와 선호도, 디자인 현황 및 업체와 시장 현황, 패턴제작 및 마케팅전략 등이 있어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기초적인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생활한복에서 추구된 가치 지향점이 무엇이며, 생활한복의 등장배경과 생활한복에 내재된 내용적 특성들이 무엇이나는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생활한복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동안 다소의 혼돈이 있었던 생활한복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생활한복이 지니온 의미와 지향하는 바를 분석하여 미래의 패션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한복의 용어를 정립하기 위하여 생활한복과 혼돈되고 있는 개량한복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두 복식이 지니는 가치 지향점을 상호 비교한다. 둘째, 생활한복의 형성배경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생활한복이 지니는 내용적 특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생활한복 형성기의 성격을 고찰한 것으로서 주로 80년대 생활한복의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로 제시되는 생활한복의 가치 지향점 및 생활한복 형성기의 내용적 특성들은 착용자의 의식 속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어 오늘날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생활한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신문·잡지 등의 자료를 분석한 이론적 고찰로서 먼저 생활한복에 관한 자료는 대학신문과 일간신문, 월간誌, 우리웃 사랑, 아름다운 우리웃, 한국의 미, 온고지신 등의 잡지, 그리고 생활한복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생활한복과 비교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량한복에 대한 내용은 주로 각종 신문자료들-제국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과 여원 잡지 및 기존의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II. 개량한복과 생활한복의 비교

생활한복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는 개량한복, 생활복, 실용한복, 우리웃, 평상복, 현대적 한복³⁾, 현대한복, 변형한복⁴⁾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용어들은 그 동안 전통한복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추구하였던 여러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생활한복은 개량한복이라는 용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용현상은 생활한복의 형성배경이 개량한복과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복식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두 복식에서 추구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 생활한복의 용어를 정립하고자 한다.

1. 개량한복의 가치 지향점

개량한복이란 비합리적인 내용을 합리적인 것으로 개선한다는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전통한복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복의 개량은 이미 조선조 실학기 이후 자주 거론된바 있는 사안으로서 이때는 '개량'이라는 용어 대신 '개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의복 형태나 의복 제도의 변화는 곧 사회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의 개량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복식 개량 및 개혁은 주로 경제적, 기능적, 실용적인 측면과 예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⁵⁾. 이처럼 역사상 복식의 개량은 어느 시대나 제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복 개량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개화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정부수립 후 1960년대까지 사회운동으로 지속되었다⁶⁾. 하지만 60년대 이후에도 개량한복은 간헐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전양진의 연구⁷⁾에 의하면 개량한복은 60년도까지는 외출복으로, 65년도까지는 평상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후 다시 1969~74년까지 외출복으로서 양장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한복 개량화 운동이 적어도 70년대 전반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70년대 개량한복의 착용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자는 기능성과 간편함을 추구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당시 여성해방운동의 대두로 활동적인 여성상이 강조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용적인 의복이 추구된 경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개량한복은 70년대 전반까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80년대 생활한복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 1>은 개화기 이후 1960년도 초까지 한복 개량

<표 1> 개량한복의 가치지향점

연 대	가치지향점	구체방안	자료출처
1905		원피스형 개량복	제국신문, 6.19.
1906	간소화, 검소	긴 저고리	제국신문(최경순외1인 (1999) 참고)
1907	경제성	색복장려	만세보, 4.25.
	활동성	통치마, 긴 저고리	제국신문(최경순외1인 (1999) 참고)
1912	경제성	염색의복	황성신문, 3.29.
1920	활동성		조선일보, 7.16.
1921	활동성, 위생, 예의, 미	어깨허리를 단 통치마, 개량 저고리	동아일보, 8.27.
1934	경제성	색채 옷 장려	매일신보, 10.28.
1938	획일화, 물자절약	옷감절약, 짧은 저고리, 통치마, 고름대신 단추	매일신보, 3.8.
1942	간소화	고름과 속속곳을 없앴	매일신보, 7.27.
1949	검소, 간편, 저렴한 가격, 간이복	동정과 깃이 없는 적삼, 통치마 (신생활 장려추진위원회에서 제정)	조선일보
1954~56	간소화, 옷감절약, 활동성	통치마, 옷고름 폐지	홍나영(개량한복운동, 복식, 15호, 1990, 144쪽)
1958	간소화	고름대신 단추, 매듭, 브로치	여원, 1958.10.
	간편, 활동적	농어촌 부녀 개량바지 저고리(화학섬유)	여원, 1959.2.
1960	실생활복	단추, 아리랑 드레스, 깃과 길이 변형된 개량 두루마기,	여원, 1961.2.
1961	실생활복	짧은 고름, 반소매, 짧은 통치마	조선일보, 5.39.
	다양화	어깨허리 통치마 원피스와 볼레로식 저고리	여원, 1961.8.
	실용화	양장요소의 대담한 도입	여원, 1961.11.
1963	다양화 예복화	볼레로식 저고리, 반소매 저고리 개량두루마기, 개량혼례복	한일친선패션쇼

에 있어서 추구된 가치 지향점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한복 개량화에 있어서 추구된 바는 활동성, 간소화, 경제성, 위생, 예의, 절약, 검소, 다양성 등으로 나타났다. 그중 활동성과 간소화는 전 기간에 걸쳐 추구된 바였으며, 위생과 예의를 위한 측면은 주로 초기에 집중되었으며, 일제 말기에는 절약과 검소함이, 50년대에는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런데 60년대에 들어서면 개량의 가치 지향점은 다소 변화되어 실생활화와 더불어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개량기 이후 계속되었던 기존 개량화의 방향은 이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힘든 과거의 가치에 불과하였으며, 근대화 서구화된 사회에 있어서 한복 개량화는 양장이 아닌 또 다른 패션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의 한복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시킬 뿐 아니라 점차 서양복 구성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한복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한복 개량운동 결과 사회적으로 수용된 개량한복 형태는 어깨허리 통치마와 고름이 없어지고 길이가 길어진 저고리 한 종류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형태만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한복의 전통적인 기본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⁸⁾. 하지만 가치 지향점이 다양한데 비해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한정적이었다는 것이야말로 개량한복이 지니는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제한된 개량한복의 수용은 합리주의와 순수 기능주의를 추구하며, 실용적인 의복스타일이라는 단일가치를 추구하는 모더니즘 문화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생활한복의 가치지향점

생활한복이란 용어에는 인간의 생활 즉 삶과 함께 하는 한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생활이란 다양한 삶의 형태가 담겨진 공간성과 현실적이라는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한복을 생활한복이라 한다면, 60년대 이후의 전통한복은 일상의 삶에서 유리된 채 특

수한 상황을 위한 박제된 의복으로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60년대 이후의 한복은 전통한복의 역할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복이라는 특수한 용도에 치우친 부분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진정한 의미의 전통한복이란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종래의 예복으로서의 한복 뿐 아니라 생활한복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야말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아 가는 전통한복이라 할 수 있다.

생활한복에서 추구된 가치 지향점은 개량한복에서 추구된 바와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생활한복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공식적으로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작업으로 한복의 개량이 다시 시작된 시기는 80년대이며⁹⁾, 초기에는 주로 개량한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¹⁰⁾. 또한 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개량'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활한복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¹¹⁾. 따라서 80년대에 들어서서 개량한복이란 이름으로 불려진 것들은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개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곧 오늘날 생활한복의 시초가 된다.

그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계에서는 이 두 용어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들이 시도되었는데, 두 용어를 동일하게 보는 입장과 구별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두 용어를 동일하게 보는 입장들은 생활한복이 개량한복으로부터 출발되었으므로 이들이 상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며,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바도 동일하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두 용어를 구분하는 입장은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견해에서 나왔으며, 간혹 한국적 디자인의 서양복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두 용어를 동일하게 보는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인자·이태옥은 이 둘이 모두 탈착의 질차를 간소화하고 착용시의 답답함과 일상생활상의 불편함을 보완한 한복이라 하였다¹²⁾. 조효순 외 2인은 모두 한복의 선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¹³⁾. 최경순·김선영은 최근의 생활한

복이란 1900년대 초기의 개량한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 최근에 그 명칭만 바뀐 것으로 보았으며, 오늘날의 개량한복을 일상용의 생활한복과 개량예복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여 개량화 작업이 예복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주시하고 있다¹⁴⁾. 또한 안명숙 외 2인은 생활한복을 우리나라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복식변화현상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여 옛것을 그대로 전수한 전통복과는 다른 변형된 우리 옷으로서 개량한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⁵⁾.

한편 두 용어를 구별하는 경우는 이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천종숙은 1990년대 후반의 '우리옷' 또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판매되는 옷을 생활한복으로 정의하였다¹⁶⁾. 고정민·채금석은 '개량한복'은 재래의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 개량하여 제작한 것이며,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에 근거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낸 형태의 의복이라 정의하였다¹⁷⁾. 그에 따르면 두 복식의 구분은 개량과 개발이라는 변화의 질적 차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생활한복을 한복의 범주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적 디자인의 현대 서양복의 범주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황의숙은 생활한복이란 양복에 한복적인 복식요소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으로서 한복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적 디자인을 지닌 현대 패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양정은·유송옥도 생활한복이란 개량한복을 포함하여 90년대의 한국적 전통을 지닌 서양복 디자인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¹⁹⁾.

이러한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 생활한복이란 개화기 이후의 개량한복과 동일한 것, 80년대 이후 전통한복이 현대화작업에 의해 변화된 것, 90년대 이후 기성복으로 판매되는 우리옷, 90년대 이후 한국적 디자인의 서양복 패션까지 포함하는 등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광범위할 뿐 아니라 복식 유형의 다양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처럼 생활한복에 대한 정의나 내용이 다양한 것은 그동안 생활한복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생활한복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면 오히려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한복이란 용어의 정의는 이러한 추구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서 정립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생활한복에서 추구되는 지향점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표에 의하면 개량한복이 활동성, 기능성, 경제성 등의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비해, 생활한복에서는 그 외에 전통적 이미지, 현대적 심미성 등 내면적인 내용미가 중요 추구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심미성은 곧 전통성과 예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생활한복에는 이 외에도 이념성이 추가되어 있다. 이념성은 민중한복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이 민중한복과 생활한복과의 관계는 생활한복의 형성배경에서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이처럼 생활한복이 내용적인 미를 추구하고 있는 경향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현상으로 다원주의가 두드러지면서 복식양식의 정신사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²⁰⁾.

이상 생활한복과 개량한복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한복이란 근본적으로 전통한복에서 변화한 것이며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개량한복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개화기의 근대화 과정은 서구의 기능주의 합리주의를 추구하여 기능성, 활동성, 경제성 등을 지향하는 개량한복으로 표현되었으며, 70년대 이후의 근대화과정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²¹⁾ 전통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생활한복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두 복식의 관계는 가치지향점이라는 내용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한복이란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에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한복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하였지만,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심미성 및 이념성이라는 다양한 내용미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전통한복이 예복 중심으로서 조선 후기의 한복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비해, 이 생활한복은 일상복과 예복으로 구분된 실생활복

<표 2> 생활한복의 가치지향점²²⁾

연	추구지향점	구체방안	자료출처
1984	활동성, 경제성, 개성		멋, 85.4.(이리자)*
1985	간소화 위생 기성복화 한복의 전통적 가치 유지	입는 방법이나 절차의 간소화 신체압박 개량 사이즈, 옷감, 가격의 다양화 우아한 아름다움과 품위 유지	멋, 85.4.(송명건)*
1990	우아함, 활동성, 편의성	과감한 디자인 복고적인 색채와 문양	진미희(1990)
1993	간소화, 위생성, 활동성		이인자 · 이태옥(1993)*
1995	실용성, 경제성, 전통적인 미, 현대적 감각	양복에 한복적인 복식 요소의 응용	황의숙(1995)**
1997	전통적 이미지	전통한복의 형, 색, 소재, 문양을 왜곡하지 않고 현대화	김희정 · 이경희(1997)
1998	편의성, 기능성, 한국적 멋	활동적 디자인, 환경친화적 소재, 전통미의 현대화, 기성복화, 국제화, 패턴제작, 경제성, 용도의 세분화, 착용대상의 자연명화	안명숙 외 2인(1998)*
	한복선의 미, 실용성		조효순 외 2인(1998)*
1999	착장성, 기능성, 활동성, 편의성, 현대적 심미성	실루엣, 소재, 세부장식 및 착장방법, 구성적 측면, 심미성에 있어서 현대화	채금석(1999)
	전통미, 활동성, 안락감, 자연미, 현대성	서구적 구성방법과 착장방법의 변화	최은영(1999)
	기능성, 전통적인 심미성	소재개발, 디자인 변형, 패턴제작	고정민 · 채금석(1999)
	전통미, 기능성, 활동성, 실용성, 경제성		최경순 · 김선령(1999)*
2000	전통미, 실용성	전통한복선에 기초, 실용적인 변화	김선경 외 2인(1999)
2000	전통미, 활동성, 현대적감각		양정은 · 유송옥(2000)**

*생활한복과 개량한복을 동일하게 봄

**생활한복의 범주에 한국적 디자인의 서양복까지 포함시킴

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전통한복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III.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내용적 특성

Bell은 현대문명의 가장 동태적인 구성요소로서 문화를 들었으며, 이 문화의 동태성은 '새로움의 전통'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 새로움의 추구는 더 이상 전위, 여행문화, 반문화 등으로 취급되어 억압받지 않으며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²³⁾. 이와 마찬가지로 생활한복은 전통문화로부터 형성된 새로움의 전통으로서,

처음에는 반문화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현재에 속하는 우리의 고유문화로 정착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

생활한복은 8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그 형성과정에는 70년대 이후의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입은바 크다. 특별히 70년대의 근대화 운동이 세계화를 지

향하면서,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민족자주성을 자각하는 주체적 각성이 일어나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⁴⁾. 그후 80년대에는 각종 세계대회의 국내개최를 앞두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하는 역사적 요구가 강하여지면서 전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 패션계에서는 84년도 이후 전통 재창조 작업이 시도되었다.

한편 80년대 청년문화 역시 우리 것을 이해하고 서구의 것을 소화시켜 개성을 추구하는 문화로 정착되면서²⁵⁾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그 가운데 대학 운동권에서 등장한 민중한복 역시 생활한복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80년대의 민중한복은 민중문화의 하나로 등장하여 착용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사회적 외피로서 현실의 이념적 갈등을 표현하였으며, 그후 이 이념성은 생활한복으로 전개되어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민중한복과 한복 패션계의 전통 재창조 작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 삶의 현장이라는 공간성과 현대적 한복이라는 시간성을 지닌 생활속에서의 한복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생활한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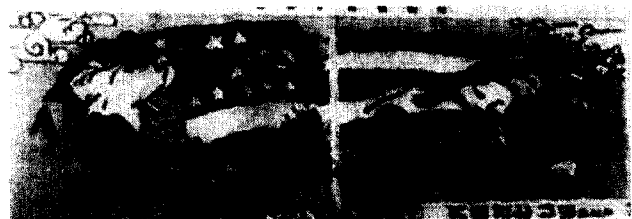
1) 민중한복의 영향

민중한복은 대학 운동권에서 등장한 것으로서 80년대에 진행되었던 소위 문화운동의 정치투쟁화²⁶⁾와 더불어 확산되었던 것이다. 82년도 이후 대학에서는 이러한 문화운동의 정치투쟁화로 대학문화의 건전화(=민주화)라는 명목아래 축제에 전통놀이와 대동제,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되어²⁷⁾ 전통에 대

한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이때 민중한복이 애용되었다.

민중한복은 형태적으로는 전통적인 민중들의 한복인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재생함으로서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 민중한복이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를 취한 것은 민중문화자체가 지니는 전통적인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민중문화란 대중문화가 생기기전의 민중의 문화, 서민의 문화로서 전통문화와 부합되는 요소가 많다²⁸⁾. 따라서 민중한복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민족적 전통과 민족 자주, 저항적 투쟁적인 의미와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적인 시련을 겪었던 민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민중한복은 민중미술을 표현한 목판화나 걸개그림에 자주 표현되었다(그림 1). 이 이념성은 그후 생활한복에도 강하게 반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민중한복에서 출발한 생활한복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예로 84년도부터 '질경이 우리옷'이 출시된 것을 들 수 있는데, 80년대 중반에 운동권 출신에 의해 생겨나기 시작한 생활한복 업체들은 이념성만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형태를 고집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한복의 한계를 만들어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²⁹⁾.

한편 80년대 초의 유행현상은 간편하고 기능적이며 활동적인 의상을 추구하고 남의 것보다는 우리 것을 찾는 의식이 강해졌으며³⁰⁾, 80년대 신세대의 패션경향 역시 고감각의 외국상품을 선호하는 소비경향과 더불어 외래문화에 배타적이며 전통문화에 집착하는 복고적인 전통지향적 패션 경향으로 양극



<그림1> 걸개그림에 표현된 민중한복
(전북 미술공동체 「하나인 우리」, 1988, 전남대 그림패 마당 「오월에서 통일로」, 1988)

화되었다³¹⁾. 이러한 경향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글 티셔츠와 생활한복이 유행하였으며, 84년도부터는 우리옷 입기 운동이 본격화되어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맞는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시도로 현대 생활에 맞는 우리옷 개발에 나서기도 하였다³²⁾. 하지만 이 시기의 생활한복은 주로 대학가에서와 문화예술인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중과는 거리가 먼 의복이었다.

2) 한복 패션계의 전통 재창조 작업

1980년대 중반부터 한복 패션계에서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세계속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리하여 비록 전통주의적 복고성향이 강하였지만 한복 생활화를 위한 작업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처음에는 개량한복의 형태를 답습한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84년도에 이리자씨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개량한복연구 발표회'를 가졌지만 이 행사는 아직 시험적인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84년도 월간 몇 잡지에 수록된 생활한복(당시에는 개량한복이라고 명명되었다) 역시 개화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그림 2). 남성복 업계에서 84년 여름 기성복으로 내놓은 모시한복 역시 적삼형태의 개량한복이었다(그림 3). 즉 시도는 새로웠지만 개량한복과 유사한 형태로 기능성을 추구한 것들이 많았다. 그 후 85년도부터 생활한복은 개량한복 형

태뿐 아니라 과거의 다양한 스타일이 재현되고 모방되는 변화가 시도되었다(그림 4). 또한 활동복, 일상복, 직장복, 종업원의 특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에도 나서 한복의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그림 5). 그 후 생활한복은 복고풍 민속풍이라는 세계적인 패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여 점차 대중적인 패션으로 정착되었고, 형태적 내용적 특징들도 다양하게 변해 갔다.

2. 생활한복의 내용적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활한복은 민중한복과 한복 패션계의 전통 재창조 작업이라는 두 가지 출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활한복에 내재된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민중한복으로부터 출발된 생활한복에는 이념성이 강조되었으며, 한복패션계에 의해 출발된 생활한복에는 전통성과 심미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생활한복 관련 연구에서도 역시 생활한복에는 전통미, 현대적 감각, 표현미와 조형미라는 예술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고). 그렇다면 한국성의 의미를 전통성, 이념성, 예술성으로 분류하여 볼 때³³⁾ 생활한복이 형성되던 80년대에 이미 그 속에 이러한 한국성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생활한복이 한국적인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패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성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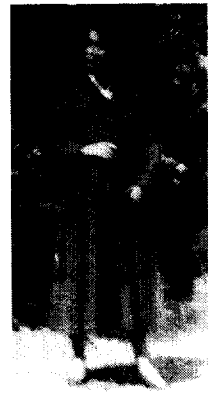
<그림 2> 개량한복형 (멋, 84.8)



<그림 3> 적삼형태의 모시한복 (조선일보 1984.8.2)



<그림 4> 삼국시대복식의 응용(멋, 85.6)



<그림 5> 일상복(멋, 85.4) 단속곳을 응용한 치마바지

가 제대로 표현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한국성이 생활한복에 표현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 내용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생활한복에 있어서 전통성이란 복고지향성 및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의 전통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념성은 저항의식 및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술성은 한국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으로 거론되는 자연주의적 순수미의 추구³⁴⁾와 더불어 현대 패션의 특징인 절충주의적 양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생활한복에서 부각되고 있는 절충주의적 양식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복고 지향성

80년대 중반에는 다양한 국제 행사의 국내 개최를 앞두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표현하려는 사회적 요구들이 있었다. 한국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한복 역시 이러한 전통주의적 복고풍 경향에 힘입어 일상생활에서 유리된 상태에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하여졌으며,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초기의 이러한 작업들은 다소 미숙하여 개량한복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후 85년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적 전통미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한복의 변화나 개량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과거의 것을 재창조하는 것으로서 개량한복

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작업의 예를 들면 당시 씨름이 국민적 스포츠로서 관심을 끌면서 전통미를 살린 씨름 심판복이 제작되었으며³⁵⁾(그림 6), 삼국시대 복식을 응용한 허리 통치마에 긴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두른 생활한복(그림 3), 남자의 고의 적삼을 응용한 생활한복(그림 7), 조선 중기 저고리를 응용한 생활한복(그림 8) 등이 제작되었다. 이상과 같이 생활한복이 전통복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적 특징을 모방하는 복고 지향성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85년도를 전후하여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적 디자인을 추구한 서양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80년대 한국성의 모색은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³⁶⁾. 이러한 복고지향성은 그후 세계적인 패션경향인 자연주의, 복고주의의 영향을 받아 90년대 중반기의 생활한복 역시 과거의 스타일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³⁷⁾(그림 9).

2) 민족적 전통성의 표현

80년대에 있어서 한국적 혹은 전통적이란 말은 주로 전통주의적 입장에 처해 있었다. 소흥열은 그 이유로서 전통을 단절시킨 민족적 불행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³⁸⁾ 즉 해방이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남과 북 각각의 문화를 온전한 민족의 문화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온전한 민족문화는



<그림 6> 씨름 심판복 (멋, 85. 5)



<그림 7> 고의 적삼의 응용 (멋, 87. 3)



<그림 8 > 조선중기 저고리의 응용 (멋,87,2)



<그림 9> 조선중기 저고리의 응용(아름다운 우리옷, 95.10)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통회복에 있어서 관심사였다. 특별히 대학가의 저항패션으로 등장한 민중한복의 경우 남복이 분단되기 이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 민족 전체의 전통이라 부를 수 있는 형태의 한복으로서 채택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성의 표현은 민중한복의 형태, 재질, 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형태는 분단 이전의 남과 북의 공통성과 통일이념을 추구한 의복으로서 바지 저고리, 혹은 통치마 저고리였다. 특히 여자의 통치마 저고리는 오늘날에도 북한 여성의 일상복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운동권에서는 남북 공통의 전통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착용되었다(그림 10, 11). 재질은 주로 무명을 사용하여 민중복식을 상징하였고, 색은 흑과 백으로 한정되었다. 그 후 서서히 민중한복의 현대화 작업에 의해 형태와 색채가 변화되었다. 색채의 경우 여자의 흰 저고리가 진달래 색 등으로, 그리고 점차 치마 색도 바뀌어 상하의 색 조화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색 조화는 당시 전통



<그림 10> 북한 여성의 통치마 저고리
(멋, 85.4. 자료제공:북한연구소)



<그림 11> 참여학생 후보의 통치마 저고리
(釜大新聞, 90.11.26)

한복의 유행경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민족적 전통성을 표현하는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생활한복은 문화적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된 것이었지만 이념성이 강하여 미적인 면이나 착용 예법 등에 있어서는 무관심하였다.

3) 저항의식의 표현

역사상 복식은 종종 민족 저항의식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조선말의 단발령과 양복에 대한 반발은 서양 세력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었으며, 일제시대의 한복은 일본정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메시지였다. 그 후 조만식, 이승만 등 개화인사들의 두루마기는 민족 지도자의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며 70년대에 들어서서 반정부운동의 민족 지지자들이 즐겨 착용한 두루마기 역시 민족 자주, 반미, 반정부라는 투쟁의 이미지와 민족 지도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의 야당정치인 고 장준하씨는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면서 흰색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이 옷은 감옥에 가기 위한 유니폼으로 입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백기완, 함석헌, 문익환 등 인사들이 한복두루마기 차림으로 시국연설을 하였다³⁹⁾.

그 외에도 민중한복은 조선말기 농민항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투쟁의 이미지를 지녀 80년대 운동권의 학생들은 학생시위나 단식농성, 놀이패의 풍물놀이 등에 즐겨 착용하였다(그림 12). 민중한복은 여성의 통치마나 남성의 두루마기에 비해 활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할 때에 착용되었다. 간문자는 흰색의 노동복



<그림 12> 농성중에 착용된 민중한복
(釜大新聞, 85.4.8)

이 민족성과 선동성을 의복에 부여했다고 보았다⁴⁰⁾. 학생운동은 83년도부터 노동계와도 연계하여 노동운동을 일으켰는데⁴¹⁾. 그후 산업현장에서도 민중한복이 노조원들의 시위복으로 착용되어 저항적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이처럼 민중한복을 통한 저항의식의 표현은 80년대 후반부터 생활한복으로 바뀌었으며, 저항의식을 표현하는 생활한복의 이미지는 한동안 고착되어 90년대 초반까지도 생활한복을 입은 학생들이나 일반인은 운동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⁴²⁾.

4)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의 표현

민중한복은 80년대의 민중미술과도 맥을 같이한다. 민중미술의 주제는 억압과 한과 자기연민 그리고 항쟁의 이미지로서, 이때의 민중이란 한국근대사의 역사적 민중, 노동대중, 대중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⁴³⁾. 그리하여 민중한복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의식한 흰색으로 된 농민복으로, 자신이 부르주아적 사회를 비판하며 혐오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빈곤함을 선택하였고 또 민중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그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민중복은 당시 민중미술로서 목판화와 걸개그림에 자주 표현되었다.

생활한복에 있어서 이러한 민중적 삶의 표현은 당시의 장식성이 강조된 화려한 전통한복을 파괴하고 추를 미학적 특성으로 표현하는 표현주의 복식의 특징을 지니며, 사회현실문제를 주제로 끌어들이 표현한 현대복식의 리얼리즘적 특성을 지닌다⁴⁴⁾.

5) 다양성을 시도한 절충주의

현대문화의 특징은 다원주의, 절충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패션은 이질성, 다양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전통성과 현대성, 남성성과 여성성, 부유함과 가난함, 아름다움과 추함, 현대 이전과 현대 그리고 현대 이후를 포함하는 것 등 이러한 양면가치들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 생활한복이 등장한 80년대에 이미 문화전반에 포스트모던적 성향이 나타났으며 생활한복도 그 영향을 받아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를 표현하고,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절충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가치를 표현하는 등 절충적 성향과 더불어 다양성이 나타났다.

(1)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 표현

생활한복에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 표현은 복고풍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스타일이 재현되거나 옛것이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정립되고, 또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의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저고리 길이는 삼국시대나 조선 초·중기 및 개화기 저고리 형태가 응용되어 매우 다양화되었다(그림 2, 4, 8, 9 참고). 또 세부 디테일로서 과거의 저고리와 포류에 사용된 다양한 직령-삼국시대의 襖(그림 4 참고), 목판깃(그림 15 참고), 동그래깃(그림 2, 5 참고), 칼깃, 당코깃, 이중깃-과 폭령-단령 및 배자의 깃을 활용한 깃-(그림 13) 및 이를 응용한 새로운 깃이 등장하였으며, 장식기법에 있어서도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전통자수와 매듭과 조각잇기 등의 전통 수공예 기법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되어 활용되고 있다.

(2)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절충

생활한복을 통하여 표현되는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절충현상은 양식의 혼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양식의 혼합은 초기에는 서양복 구성기법이 활용되어 다른 양식을 가미하는 수준으로서 나타나, 깃을 서양 칼라-플랫 칼라, 프릴 등-로 대



<그림 13> 다양한 전통깃의 활용

- 당코깃
(아름다운 우리옷, 95.11)
- 이중깃
(아름다운 우리옷, 97.12)
- 칼깃
(아름다운 우리옷, 99.9)
- 단령의 깃 이용
(멋, 84.6)
- 배자의 깃 이용
(아름다운 우리옷, 93.6)

신하거나(그림 14), 소매의 진동선을 곡선으로 변형시키고, 포켓을 달거나, 바지에 지퍼를 사용하고, 저고리 여밈을 서양복 여밈 방향으로 처리하거나 단추를 사용하고, 한복치마의 여밈 처리를 랩스카트로 변화시키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양복 구성의 도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당시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불황을 맞은 양장업계 종사자들이 생활한복 업계에 유입된 것과 또 한편으로는 한복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복 구성의 도입은 초기에는 '전통한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국적없는 생활한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동서양의 양식이 혼합되어 여성복의 경우 적삼형 생활한복에 서양 스커트를 착용하는 예가 많았으며(그림 15), 90년대에는 생활한복 상의에 청바지나 스커트의 조합, 한복 바지



<그림 14> 서양칼라의 응용(멋, 85.5)



<그림 15> 동서양 복식의 혼합
(적삼, 가디건, 랩스카트, 멋, 87.8)

에 T셔츠나 남방의 조합 등으로 전통과 현대 혹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이 공존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다(그림 16).



<그림 16> 동서양 복식의 혼합(청바지와 생활한복 상의, 1992. 자료제공: 부산대학교 방송국)

(3)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가치 표현

전통한복은 성의 구분이 분명한 의복이지만, 생활한복은 그 벽을 허물어 의복의 형태·색에 있어서 성별을 초월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17).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삼국시대의 한복이 남녀 구분없이 바지 저고리를 착용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생활한복은 형성 초기부터 민중한복의 경우 남녀 공용으로 착용되어 형태상 성의 구분을 해체하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한복 여밈의 방향이 남녀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며, 의복 구성상 길과 깃, 섶 등이 동일한 형태이면서 크기나 세부적인 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은 여



<그림 17>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가치 표현(멋, 85.4)

전혀 남녀 한복이 지니는 공통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여자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남성적인 경향이 가미되고, 남자 저고리는 다소 짧아지고 선이나 장식적인 면에서 여성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또 남자 한복 바지는 여성도 즐겨 착용함으로써 남녀 한복의 형태는 유사한 형태와 색, 재질로서 상호간의 특징을 수용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한복은 형성 초기에 다양한 내용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생활한복이 지니는 다양성이야말로 현대 패션으로서의 생활한복이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한복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생활한복이 지니는 의미와 지향하는 바를 분석하여 미래의 패션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한복과 개량한복과의 상호관계를 각 의복이 지니는 가치 지향점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한복이라는 용어는 개량한복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구별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생활한복이 개량한복으로부터 출발되었으며 내용상 추구하는 바가 동일하므로 이들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는 두 복식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입장이며, 간혹 복식유형의 범주를 한국적 디자인의 서양복까지 확대하기도 하였다.

1) 개화기 이후 한복 개량화에 의해 추구된 가치 지향점은 주로 활동성, 간소화, 위생, 예의, 절약, 검소 지향성이었으며, 60년대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추가되었다. 즉 60년대 이전까지의 추구지향점은 근대산업사회의 합리성, 기능성이라는 단일 가치를 추구하는 모더니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다. 개량한복의 형태에 있어서도 전통한복과 유사한 형태인 어깨허리 통치마와 긴 저고리만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단일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 생활한복의 추구지향점은 개량한복이 기능성이라는 외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비해 전통적 이미지, 민중적 이미지, 현대적 심미성 등 주로 내면적인 내용미를 더 추구하고 있다. 생활한복과 개량한복은 모두 전통한복에서 출발하였으며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개량한복을 탄생시킨 근대화가 서구의 기능주의 합리주의를 추구하는데 비해 생활한복을 탄생시킨 근대화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통성 회복에 관심을 두었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생활한복이나 개량한복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당시의 시대적 특성과 더불어 변화한 것으로서, 전통의 본래적 요소라고 간주할 수 있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2. 생활한복의 형성배경은 70년대 이후의 근대화 작업이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여진 데 영향을 받은바 크다. 그후 8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대회의 국내 개최를 앞두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복 패션계에서의 생활한복이 형성되었다. 또 한편으로 생활한복은 대학 운동권에서 등장한 민중한복으로부터 출발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 대학 운동권에서 등장한 민중한복은 80년대에 우리 것을 찾으려는 청년문화에 의해 형성된 후 문화운동이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면서 확산되었다. 이 민중한복은 바지 저고리와 통치마 저고리로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고수하였지만, 민중의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되고 민중적 삶의 현장에서의 의복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 생활한복의 기초가 되었다. 그후 84년도부터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생활한복이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이념성이 강조되어 미적인 측면은 무시되었다.

2) 한복 패션계에 의해 주도된 생활한복은 전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형태적으로 개량한복을 답습하였지만 85년도 이후 전통적인 형태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해 나아가면서 전통성과 심미성이 강조되었다.

3. 생활한복에 나타나는 내용적 특성은 전통성, 이념성, 예술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통성은 복고지향성 및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의 전통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념성은 저항의식 및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술성은 절충주의 양식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생활한복 형성 초기부터 나타난 특징들이다.

1) 생활한복에는 전통주의적 복고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 초기에는 개량한복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85년도부터는 창조적인 현대화 작업이 시도되었지만 그 역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및 개화기의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적 특징을 모방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한국성의 모색이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0년대 중반이후의 생활한복 역시 복고풍의 영향으로 과거의 스타일을 재해석 재창조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활한복에 표현된 민족적 전통성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의 공통적 민족 문화를 지향하는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남자의 바지 저고리와 여자의 통치마 저고리로 남북의 공통성과 통일 이념을 추구하였다.

2) 생활한복에 표현된 이념성은 저항의식과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상징하는 내용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저항의식의 표현은 70년대 반정부운동가의 두투마기에서의 투쟁적 이미지나 민족 지도자적 이미지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농민항쟁에 나선 농민의 투쟁적 이미지의 영향을 받았다.

소외되고 가난한 민중적 이미지는 민중의 억압과 한과 자기연민, 항쟁의 이미지로서 흰색 농민복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장식성이 강조된 전통한복의 미를 거부하고 추를 미학적 특성으로 표현하는 표현주의 복식 및 현대복식의 리얼리즘적 특성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이념성들은 비교적 초기에 있어서 생활한복에 나타난 내용적 특성으로서 90년대 초반까지도 생활한복의 이미지로 남아있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심미성이 강조되면서 약해졌다.

3) 생활한복에는 현대 문화의 특징인 포스트모던적 성향에 의해 다원적 절충적 현상이 나타나 다양한 과거의 스타일이 혼합되거나 옛것이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정립됨으로서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 가치를 나타내고,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절충현상,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가치가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 표현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및 개화기 한복 형태를 응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양화시킨 예를 들 수 있다.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것으로 직령-삼국시대의 襪, 목관깃, 동그래깃, 칼깃, 당코깃, 이중깃-과 곡령-단령 및 배자의 깃등-을 활용한 것과 전통 수공예 기법의 현대적 재창조 작업으로 나타났다.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절충현상은 양식의 혼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80년대에는 주로 서양복 구성 기법을 활용하거나 여성복의 경우 적삼형 생활한복에 스커트를 착용하는 예가 많았으며, 90년대에는 생활한복과 청바지등 양식의 혼합으로 전통과 현대 혹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이 공존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가치 표현은 초기부터 민중한복과 한복 패션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고대 복식이 남녀 구분없이 바지 저고리를 착용한데 영향을 받은바 큰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성의 의미를 전통성, 이념성, 예술성으로 볼 때 생활한복이야말로 한국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내용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패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한복이 지니는 내용적인 다양성이야말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생활한복의 발전을 위한 전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에드워드 쉴즈, 김병서·신현순 옮김, 전통, 대우학술총서 번역51, 민음사, 1992, 27쪽.
- 2) 안명숙·김은정·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전망, 복식, 39호, 1998.
- 3) 김윤희·김민자, 인체의 추상형/사실형 개념에 따른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연구, 복식 41호, 1998, 14~15쪽. 현대적 한복이란 전통적 한복의 의례적 표현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양식으로 화려하게 변화시키거나 전통한복을 편리하게 고친 것으로서, 전통적 한복과 현대복식의 혼합이다.
- 4) 최선형 외 2인,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호, 1997. 전통한복과 비교하여 변형한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분명하게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개량된 한복 및 양복에 한복의 요소를 도입시킨 것까지 변형한복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전통한복에 있어서 장식성이 강조되고 바이어스로 재단된 치마로 A라인 실루엣을 이루는 형태를 변화형 한복 혹은 변형한복이라 부른바 있다.
- 5) 정혜경, 조선후기 실학파의 복식제도론, 한국의류학회지, 21권 6호, 1997.
- 6) 이러한 개량운동에 대하여 홍나영(1990)은 공식적으로 개량운동이 제안된 1961년까지를 개량한복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이후 개량한복에 대한 논의나 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홍나영, 개량한복운동, 복식, 15호, 1990.)
- 7) 전양진,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의 관계 연구-한국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1999.
- 8) 남윤숙, 한국현대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9, 169쪽.
- 9) 월간 뎛, 85. 4. 송명건 교수의 글에 의하면 당시 한 여성단체에서는 3년째 '한복을 생활복으로 입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한다.
- 10) 84년도에 이리자는 '개량한복 연구 발표회'를 가지면서 '개량된 생활한복'이라 명명하였다.(월간 뎛, 85. 4)
- 11) 겸재정,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1986.
- 12) 이인자, 이태욱,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 13) 조효순·전양진·이상은, 한복 제작업체의 경영 및 유통 실태 분석, 한복문화학회, 1권 2호, 1998.
- 14) 최경순·김선령, 생활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권 1호, 1999.
- 15) 안명숙·김은정·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전망, 복식, 39호, 1998.
- 16) 천중숙,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6호, 1998.
- 17) 고정민·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다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5호, 1999. 그러나 한편 채금석은 생활한복의 출발점을 개화기 이후로 정하여 시기적으로는 개량한복과의 연장선상에 두었으며, 현대화 작업의 내용으로 착장성, 기능성, 활동성, 편의성, 현대적 심미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채금석,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I), 복식, 46호, 1999.)
- 18) 황의숙, 한국여성 전통 복식의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1995.
- 19) 양정은·유송옥,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 복식, 50권 3호, 2000.
- 20)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복식, 38호, 1998.
- 21) 금장태, 청년문화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 「사회변동기에 있어서의 전통문화와 청년문화」,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9, 264~270쪽.
- 22)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한복 중심으로-, 복식 15호, 1990.
이인자, 이태욱,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황의숙, 한국여성 전통 복식의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1995.
김선경·조효순·정인희, 생활한복 착용 경험자들의 소비 실태 및 의식 연구(I), 한복문화학회지, 2권 1호, 1999.
김희정·이경희, 한국적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자인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1권 3호, 1997.
안명숙·김은정·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전망, 복식, 39호, 1998.
조효순·전양진·이상은, 한복 제작업체의 경영 및 유통 실태 분석, 한복문화학회, 1권 2호, 1998.
채금석,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I), 복식, 46호, 1999.
최은영, 생활한복의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45호, 1999.
고정민·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다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5호, 1999.
최경순·김선령, 생활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권 1호, 1999.
양정은·유송옥,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 복식, 50권 3호, 2000.
- 23) 임희섭,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출판사, 1986, 230쪽.
- 24) 금장태, 위의 책, 264~270쪽.
- 25) 조선일보 1980.7.16.
- 26) 백낙청,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실천문학, 창간호.

- 1985, 15쪽. 이것은 정치투쟁을 위하여 문화적 제능력이 총동원되는 현상이다.
- 27)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 운동사, 형성사, 1997, 332~333쪽.
 - 28) 김원태, 대중사회와 문화현상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과학 7, 통권 9, 고대 신문방송 연구소, 1985, 44쪽.
 - 29) 섬유저널 99.3.20.
 - 30) 조선일보 1980.4.3.
 - 31) 염혜정·조규화, 한국신세대의 복식양식, 한국의류학회지, 16권 3호, 1992.
 - 32) 조선일보 1984. 6. 28. 「우리옷 입기 전시 발표회」 출품가운데는 한글 T셔츠 등과 배잠방이 같은 상의, 소매와 목부분에 한복선을 살린 형태들도 나왔다.
 - 33) 임희섭,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6, 197쪽.
 - 34) 금기숙, 조선 복식미의 탐구, 복식, 14호, 1990. 최세완·김민자, 현대패선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198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권 1호, 1993.
 - 35) 이 심판복은 각저총 씨름 인물과 고구려 여인복 및 신라 화랑도의 무도복을 합하여 만든 것이었다.
 - 36)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후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3호, 1995.
 - 37) 구체적인 사례들은 뒤에 언급될 '5)다양성을 시도한 절충주의'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가치 표현'에서 볼 수 있다.
 - 38) 소홍열, 한국성 모색을 위한 철학적 고려, 공간 6월호, 1987, 37쪽.
 - 39) 김유경, 옷과 그들, 삼신각, 1994, 273쪽.
 - 40) 간문자, 국내 학생운동에 표현된 저항패선에 관한 연구, 복식, 41호, 1998, 160쪽.
 - 41)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 운동사, 형성사, 1997, 332~333쪽.
 - 42) 강혜원·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Ⅱ)-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권 2호, 1990, 13쪽.
 - 43) 성완경, 오늘의 미술에 나타난 민중의 이미지, 실천문학, 1985, 창간호, 221~226쪽.
 - 44)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121~122쪽.